

살인 폭염에... 열사병 사망·가축 폐사 피해 확산

광주 텃밭서 일하던 80대 숨져... 닭·돼지·오리 등 3만8000 마리 폐사 광주·전남 온열질환자 229명... 체감온도 35도 이상 혹독한 폭염 계속

광주·전남지역에 16일 이상 폭염특보가 이어지면서 온열질환 사망자가 발생하고 가축폐사도 급증하는 등 피해가 확산하고 있다.

4일 광주서부소방에 따르면 전날 오후 2시 50분께 광주시 서구 금호동 한 아파트 인근 텃밭에서 80대 A씨가 체온이 42도까지 오르면서 의식을 잃고 쓰러져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숨졌다.

A씨는 올해 광주·전남에서 공식적으로 인정된 첫 온열질환 사망자다.

앞서 지난달 23일 장흥에서도 30도가 넘는 더위 속에서 밭일을 하던 80대 여성 B씨가 숨진 채 발견되기도 했다.

온열질환자 수는 급증하고 있다. 질병관리청의 '온열질환 응급실 감시체계'에 보고(5월 20일~8월 3일)된 광주·전남 온열환자수는 총 229명(광주 31명, 전남 198명)에 달한다. 지난해 같은 기간 발생한 온열환자(129명, 광주 33명·전남 96명)에 2배에 가까운 수치다.

가축은 6월 17일 이후 전남 15개 시·군 60개 농가에서 닭·돼지·오리 등 총 3만 3804마리가 폐사했다.

양계 농가 12곳에서 3만 1898마리의 닭이 폐사했으며 돼지 농가 45곳에서 1054마리, 오리 농가 3곳에서 852마리가 폐사했다. 총 피해액은 4억 5200만 원에 달한다.

어패류 피해는 보고되지 않았으나 지난달 31일부터 전남 해안에 고수온 위기경보 '심각' 단계가 발령돼 경보등이 켜졌다.

해양수산부는 지난 2일 도암만에 고수온경보를 발령하면서, 도암만과 함평만·득량만·여자만 등 전남 4개 해역에 고수온경보가 내려진 상태다.

4일 기준 함평만의 수온은 31도까지 올라 전남보다 0.7도 높고 평년(2012~2023) 29.5도보다 0.5도 높은 온도를 보였다. 이외에도 득량만 30도, 여자만 29.1도, 도암만 27도 등을 기록했다.

광주·전남 지역에서는 덥고 습한 날씨로 인해 낮 최고체감온도 35도를 넘는 찜통 더위가 맹위를 떨치고 있다.

4일 구례의 체감온도는 38.3도까지 치솟았고, 담양 37.8도, 광양읍 37.4도, 완도 37.2도, 광주 풍암 36.5도를 기록했다.

밤에도 기온이 떨어지지 않아 열대야 현상도 지속되고 있다. 3일 밤부터 4일 새벽 사이 최저기온은 여수 27.9도, 광양시 27.5도, 순천시 27.2도, 완도 27.1도, 광주 26.9도, 목포 26.9도 등을 기록했다.

광주·전남 지역 평년(1991~2020) 열대야 일수는 11.4일이지만, 올해 열대야는 벌써 16.1일 발생했다. 광주에서는 지난달 21일 이후 14일 이상 열대야가 연달아 발생했다.

이런주도 체감온도 35도 이상의 혹독한 무더위가 지속될 것으로 전망돼 피해가 확산할 수 있다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

광주지방기상청은 "5일 낮 최고기온은 33~35도에 분포하고 6일도 33~35도까지 오르는 등 당분간 폭염이 이어질 것"이라고 4일 예보했다.



'이글이글' 타오르는 도로 광주·전남 전역에 폭염특보가 내려진 4일 광주시 북구 일곡동의 도로 아스팔트 위로 아지랑이가 피어 오르고 있다. /나명주 기자 mjna@kwangju.co.kr

5~6일에는 대기 불안정으로 인해 광주, 나주, 담양, 화순 등 일부 지역에 5~40mm의 소나기가 내릴 것으로 예보됐다.

비는 짧은 시간, 좁은 지역에 집중되면서 일시적으로 강하게 내릴 수 있겠다. 기상청은 한반도 대기 하층에 고온다습한 북태평양 고기압이, 상층엔 건조한 티베트고기압이 위치하면서 지표면의 열을 가두는 '열돔 현상'이 계속돼 최소 광복절 이전까지는 폭염이 이어질 것으로 분석했다.

기상청은 북태평양고기압의 가장자리를 따라 덥고 습한 남풍류가 유입되면서 밤사이에도 기온이 떨어지지 못해 열대야가 지속될 것으로 예보했다.

기상청 관계자는 "폭염이 장기간 지속되면서 온열질환 발생 가능성이 매우 높으니 낮 12시~오후 5시 사이 야외활동을 자제하고, 산업·농업 피해 등에 대비해달라"고 당부했다.

기상청은 북태평양고기압의 가장자리를 따라 덥고 습한 남풍류가 유입되면서 밤사이에도 기온이 떨어지지 못해 열대야가 지속될 것으로 예보했다. 기상청 관계자는 "폭염이 장기간 지속되면서 온열질환 발생 가능성이 매우 높으니 낮 12시~오후 5시 사이 야외활동을 자제하고, 산업·농업 피해 등에 대비해달라"고 당부했다. /장혜원 기자 hey1@kwangju.co.kr

고수온에... 고흥·여수 해역 등 적조 위기경보

관심→주의로 상향 발령

정부가 고흥, 여수 등 4개 해역에 적조(赤潮) 위기경보 '주의' 단계를 발령했다.

해양수산부는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이하 수관)이 최근 충남 천수만에 적조 예비특보를 발표하고, 고흥군 득량만 등 5개 해역에 예비특보를 발표함에 따라 이같이 대응 단계를 상향했다.

전남에는 지난 2일을 기해 코클로디니움(독성)이 출현한 고흥 득량만(50~300개체/m)과 여수 여자만(0~0.5개체/m)·가막만(0~0.2개체/m), 전남 서

부·동부 남해안바다에 해당하는 완도 보길도·여수 돌산도(0.1~50개체/m) 지역에 적조 예비특보가 내려졌다.

지난달 28일 충남 천수만에는 차토넬라(0~10개체/m)가 발견돼 예비특보가 발령됐다.

해양수산부는 2개 해역 이상 예비특보 혹은 적조주의보 1개 해역 이상 내려졌을 경우 '적조 재난 위기대응 실무매뉴얼'에 따라 적조 위기 경보(관심→주의→경계→심각 순)를 발령한다.

적조는 바다나 강 등에 플라크톤이 번식해 붉은 색의 물로 변하는 현상을 말한다. 바람이 적게 불고

일조량이 많은 여름철에 주로 발생한다. 적조가 발생하면 대량 번식한 플랑크톤이 해양 생물에게 독성 물질을 분비해 폐사시켜 해양 생태계를 파괴하고 양식업에 피해를 준다. 또 부패한 조개와 물고기 등으로 인해 환경 오염으로 이어지기도 한다.

해양수산부는 "전남 남해안 해역은 규조류 등 경쟁생물이 감소하고 있으며 코클로디니움 성장에 유리한 해양환경이 유지되고 있어, 급격한 밀도증가와 함께 주변해역으로 확산될 수 있다"고 당부했다. /김다인 기자 kdi@kwangju.co.kr

보성 앞바다서 전어잡이 어선 전복 1명 사망

보성 앞바다에서 불법조업을 하던 전어잡이 어선이 전복돼 1명이 숨졌다.

어수해경은 지난 3일 오전 6시께 보성군 장도 남쪽 1.5km 바다에서 무등록 자망어선 A호(0.5t급, 선원 2명)가 전복되는 사고가 났다고 4일 밝혔다.

이 사고로 선원 B(38)씨가 해경에 의해 30여분 만에 구조됐으나 결국 숨졌다. 선장 C(58)씨는 사고 직후 인근에서 조업하던 어선에 의해 구조됐다. /장혜원 기자 hey1@kwangju.co.kr

해경은 이들이 자망 그물을 걷어올리는 작업을 하던 중 너울성 파도가 치면서 A호가 뒤집힌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해경은 사고 당시 인근에 있던 어선의 목적자와 선장을 상대로 정확한 사고 경위를 조사하는 한편 C씨를 업무상 과실치사, 수산업법 위반 등 혐의로 입건할 수 있는지 검토 중이다. /장혜원 기자 hey1@kwangju.co.kr

높이 1.7m 비계서 '안타까운 추락사'

광양 70대 참변...장성 60대 감전사 등 전남 공사현장 잇단 사망사고

전남 지역의 공사 현장에서 사망 사고가 잇따라 발생했다.

4일 장성경찰 등에 따르면 지난 1일 오후 1시께 장성군의 한 자연재해 대비 배수로 정비공사 현장에서 작업을 하던 60대 A씨가 감전으로 쓰러졌다.

A씨는 심정지 상태로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결국 숨졌다.

A씨는 당시 핸드드릴로 벽면에 구멍을 뚫는 작업을 하고 있었으며, 드릴에 연결된 전선의 피복이 벗겨져 공사장 바닥 고인 물에 닿으면서 감전사고를 당한 것으로 조사됐다.

지난달 31일에는 광양시의 한 카페에서 인테리어 공사를 하던 70대 작업자 B씨가 병원

치료를 받다 숨졌다.

B씨는 지난달 15일 오전 11시 50분께 천장 페인트를 칠하는 작업을 한 뒤, 이동식 비계에서 내려오다 1.7m 아래로 추락한 것으로 확인됐다. B씨는 머리를 크게 다쳐 병원으로 옮겨져 치료를 받다 보름여 만에 숨졌다.

경찰은 A, B씨의 구체적인 사고 경위를 조사하는 한편 현장 관리자 등을 대상으로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를 조사하고 있다.

광주지방고용노동청도 중대재해처벌법 대상 사업장 여부를 파악하고 있다.

/유연재 기자 yjyou@kwangju.co.kr /장혜원 기자 hey1@kwangju.co.kr

71 광주일보 71년 호남 최대 부수·열독률 1위

건물·주택 지붕공사, 스틸방수, 리모델링

건축시공, 설계, 견적, 리모델링, 상담문의



칼라강판 지붕공사



건물 리모델링



전원주택신축

공장신축



옥상스틸방수



주택(외, 내부) 리모델링



징크판넬시공

창호(샷시)교체